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이틀 앞둔 3일 오후 광주공장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군공항 이전법 국회 통과 ‘눈 앞’ 시·도, 사전 협의 정치력 보여야

이전 대상지 선정 지역 내 갈등
광주시장 ‘합평군 편입 가능’
전남도, 유감 표명하며 강력 반발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전 대상지 선정 등을 놓고 지역 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선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전 협의와 조율 등 높은 수준의 정치력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지역 상생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다면 다음날인 6일 전체 회의에 이어 13일께 본회의 통과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국방부, 기재부, 국회와 함께 조문과 관련한 조율을 마쳤고 ‘쌍둥이 법’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도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이번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라면서 “5차 설명회까지 마지막 합평이든, 무안이든, 고흥이든, 어디든 예비 후보

지 선정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합평지역 일부 단체에서 군 공항 이전 조건으로 내세운 광주와 합평의 통합 추진 및 민간 광주공항 합평 이전 등에 대해서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결정 선례가 있으니 어려운 문제는 아니며, (민간공항 이전 지역도)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아직 (합평군으로부터) 통합 검토나 제안 등은 공식적으로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날 강 시장의 합평 통합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전남도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유감 표명을 하는 등 군공항 이전을 놓고 사·도간 첫 불협화음이 나왔다.

이날 전남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합평군의 광주시 편입은 원칙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전남도와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이는 군공항 이전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무엇보다 전남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의 예로 든 대구·경북 사례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군공항만을 이전하는 광주·전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 안보 현안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전지역 주민이 군공항 이전을 고려할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논리다.

전남도는 “전남 특정 사·군이 광주시로 편입될 경우 지방소멸시대에 인구감소 및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전남도에 큰 불이익과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광주시는 전남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을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지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상생의 산물’로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해줄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우려처럼 광주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부상한 합평군과 무안군내에서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합평에서는 유치위와 이전저지범대위가 각각 구성돼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무안군 제공항이 자리하고 항공특화산업단지(MRO) 조성 사업을 추진중인 무안군에서는 군공항 이전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국가 지원 내용과 규모가 밝혀질 경우 다른 사·군 역시 군공항 유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논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는 특정 지역을 정했거나 염두하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가장 우선시 되는 과제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이며, 그 다음 단계가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 짓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비

유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상수원 고갈 위기에 직면한 광주·전남에 4일 오후부터 단비가 내린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부터 6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30~80mm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20mm 이상의 비도 예상되고 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이번 비는 6일 오전 중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전남 동부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광주·전남 4~6일 단비 예보...남해안 등 최대 120mm

비(시간당 20~30mm)가 집중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리산 인근에 급격히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계곡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5일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초속 15m강한 바람이 동반되고 해상에서는 최대 4m의 풍랑이 예상돼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가뭄이 심한 남부지역에 이번 비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봄비치고는 양이 많고 돌풍과 천둥·번개 등 위험기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80mm 온다

한미일, 제주 남방서 대잠전훈련...北 SLBM 대응력 향상

한미일 3국이 3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CVN-68)가 참가한 가운데 대잠전훈련과 수색구조훈련에 돌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에 한국 해군에서는 이지스구축함 울곡이함 (DDG-992), 구축함 최영함 (DDH-981), 대조영함 (DDH-977), 군수지원함 소양함 (AOE-51)이 투입됐다.

미 해군에서 지난달 27일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했던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더함 (DDG-73), 웨인 E. 메이어함 (DDG-108) 등이,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구축함 우미기리함 (DD-158)이 각각 참가했다.

지휘관은 크리스토퍼 스워니 미국 제11함모장 습단장이다.

국방부는 “이번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 수중위협에 한미일의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잠전훈련에는 한미 해군이 보유한 수중 무인표적 (EMATT)을 활용, 북한 수중위협에 대한 3차의 탐지, 추적, 정보공유, 격멸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여외와 비슷한 형상인 EMATT는 북한 잠수함을 모의한 표적으로 잠수함처럼 음파를 발생한다. 훈련에서 한미일은 수상 함정이 EMATT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탐지해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어뢰로 파괴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군 관계자는 “크기가 몇 m에 불과한 무인수중 표적을 적용한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주장한 무인수중공격정 ‘해일’ 등 북한의 무인수중전력 개발에 대응하는 해군의 능력을 드러내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대잠전훈련은 2022년 9월 30일 시행 이후 6개월만이다. 당시에 미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 (SSN-760)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농민 “인력난·인건비 비싸 농사 못 짓겠다” ▶6면

굿모닝 예향 -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18·19면

타이거즈 전망대-메디나·윤영철 첫 출격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양 고함도 레티놀이 분기된
잠자 주름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40~50세 성인 여성 (시험 대상) 2019.08.16~10.17 8주간(주)아이오페연구소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